

# 전주비빔밥 전주홍보 역할 '엄지척'

### 타이둥 개최 슬로푸드 페스티벌서 '최고의 음식' 찬사 시, "미식도시의 매력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 늘릴 것"

유네스코 음식천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전주비빔밥이 타이완 타이둥에서 개최된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에서 주목을 끌면서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전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해냈다

전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타이완 남부 타이둥에서 개최된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전주비빔밥 행사가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국제 슬로시티연맹 후보도시인 타이둥에서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타이완 통남부 최대 규모의 슬로푸드 페스티벌로 시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현지 주민과 국내외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슬로푸드인 전주비빔밥 시연, 시식 행사, 전주 관광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연과 시식을 통해 전주비빔밥을 경험한 관람객들은 맛과 향 색

깔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음식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는 후문이다

전주의 비빔밥 업소를 대표하여 이



전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타이완 남부 타이둥에서 개최된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전주비빔밥' 행사가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성명용 한국집 대표는 "보다 더 품격 있는 전주비빔밥을 선보이기 위해 바쁜 가운데에도 전주비빔밥 수석 셰프 등 2명의 셰프와 함께 다녀왔다"며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과 국내외의 관람객들의 전주비빔밥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뜨거워 상당히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성공적인 전주비빔밥 홍보 행사 진행으로 글로벌 미식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미식도시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외국인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공공기관 취업지원 설명회

### '중국 텐진 호텔에서 제2의 한국 총지배인 찾으러'

####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심두현 총지배인 전주대 방문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31일 교내 사회과학대학 1층 계단식강의실에서 전북이전공공기관 NCS기반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현행 권고규정인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방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인력의 30%를 이전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취업지원 설명회에는 재학생 2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은 전북 이전 공공기관 채용 안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과정 이해, NCS 입사지원서 작성 및 역량면접 이해 등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전북이전 공공기관으로 특화하여 NCS기반 채용 설명회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장기간별로 세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기동취재반

지난 30일 중국 텐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심두현 총지배인이 호텔리어 모집을 위해서 전주대에 직접 방문했다. 심 총지배인 같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한국인 호텔리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심 총지배인은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도 해외 호텔에서 인정 받은 베테랑 호텔리어다. 베이징 5성급 호텔인 그랜드메르큐어사(Grand Mercure Xidan Beijing)에서 총괄이사를 지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호텔 총지배인까지 맡게 됐다.

심 총지배인은 비행기 열차, 버스를 타고 총 17시간 걸려 전주대를 찾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주대를 찾은 것이다. 심두현 총지배인은 "베트남 지인으로부터 소문을 듣고 전주대학 교를 찾았다"며,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해외 호텔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2016~2017년에도 싱가포르 하얏트 인



지난 30일, 중국 텐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심두현 총지배인이 호텔리어 모집을 위해서 전주대에 직접 방문했다.

사부장과 그랜드파크 호텔의 인사담당 임원이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직접 뽑아갔다. 올해 지난 17일에도 베트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5명의 F/O 및 F&B를 선발하기 위해서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아미라 호텔과 파크 호텔 그룹에서도 각각 2명, 10명의 학생을 채용했다. 채용된 학생들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숙소로 일반 객실과 식사로 1일 1부페식의 특혜를 받게 된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비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덕분이다. 호텔 근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실기 위주 교육을 하고 수업의 80%가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해외 호텔에서 인기가 높다. 매년 5~6월에는 호텔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실무 능력도 키운다

2006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280명의 학생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매년 30여 명의 학생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 위치한 4~5성급 호텔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이는 국내 90여개의 호텔경영학과 중 단연 돋보이는 결실이다.

/기동취재반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도·농 교류체험학습을 실시했다.

### '근대역사 숨쉬는 군산문화 탐방'

#### 군산교육지원청 도·농 교류체험학습 실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지난 30일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도·농 교류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도·농교류체험학습은 군산월명초등학교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생활환경이 서로 다른 양교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상대 지역의 문화체험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문화적 특성 및 자연환경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군산지역을 방문한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오전에는 군산월명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월명산 걷기와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진안중앙초 학생들과 군산월명초 학생들이 조를 이루

어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탐방하면서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를 배우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 9월에는 군산월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진안중앙초등학교와 진안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 데 주요활동으로는 미아산 탐사 체험하며 이야기 나누기, 농촌테마공원등을 탐방 할 예정이다

주광순 교육장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체험학습으로 군산과 진안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군산근대문화유산을 많이 보고 배우며 친구들과도 폭넓은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동취재반

### 내일까지 부안에서 초등 경력교사 수업나눔 워크숍

전북도교육청은 부안 모항에서 6월 1일부터 이틀간 15년 이상 근무한 초등 경력교사들의 수업경험 및 수업고민 나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험에 새로운을 더하는 초등 경력교사 수업나눔 워크숍'을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15년 이상 초등 경력교사와 교육지원청 초·중·고교장 등 19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 교사들은 이를 통한 마음의 온도를 높여 출 공예체함을 시작으로, 선생님께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그룹 T&B 팝페라 콘서트, 분임별 수업경험과 고민나눔, 새로운을 더하는 수업과 평가 사례나눔, 워크숍 소감발표 등으로 참가자 전원이 리더가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끌어 주게 된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하는 경력교사들에게는 학교에서 중견교사로서 가지는 책임감과 중앙감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을 채우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5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에게 수업나눔의 실제 공유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교사들이 쌓아온 교육경험에 교육과정 개정 및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 개선에 새로운을 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라며 현장에서 모아진 초등 경력교사들의 의견은 도교육청의 수업관련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